

---

**‘자본시장탄소중립시대’ 토론회**

**자금조달 현황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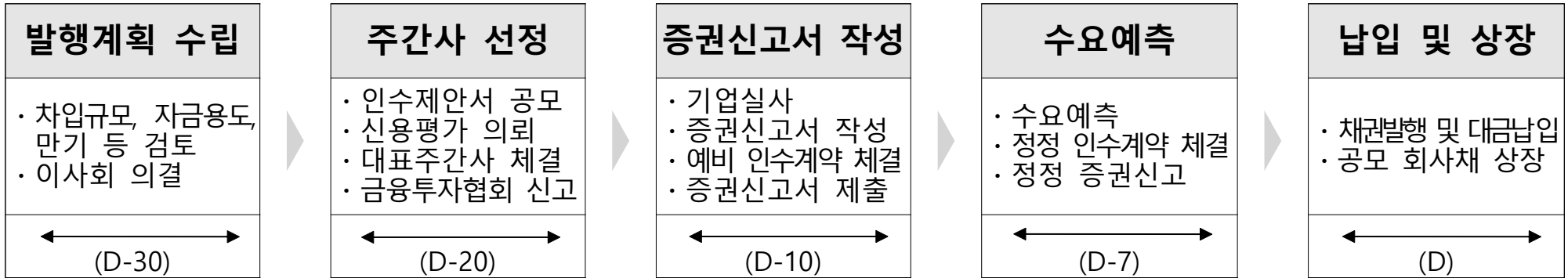
---

202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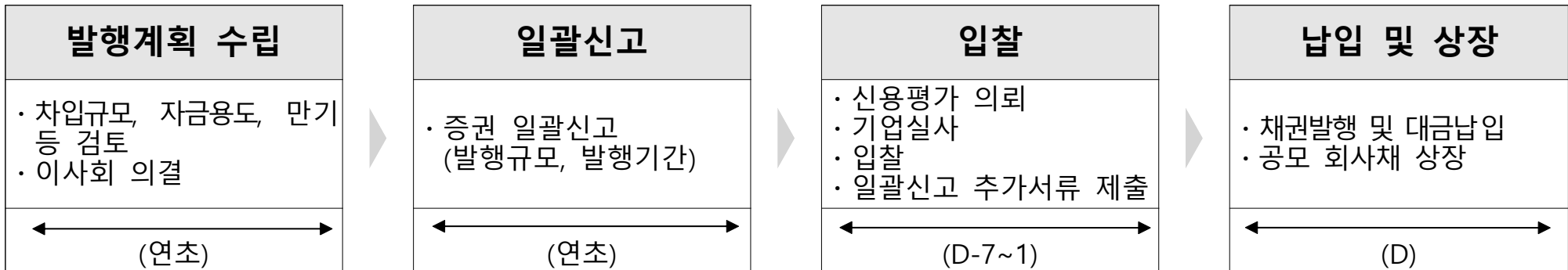
한국서부발전

# 1.1 (원화) 채권 발행절차

## □ 개별증권 신고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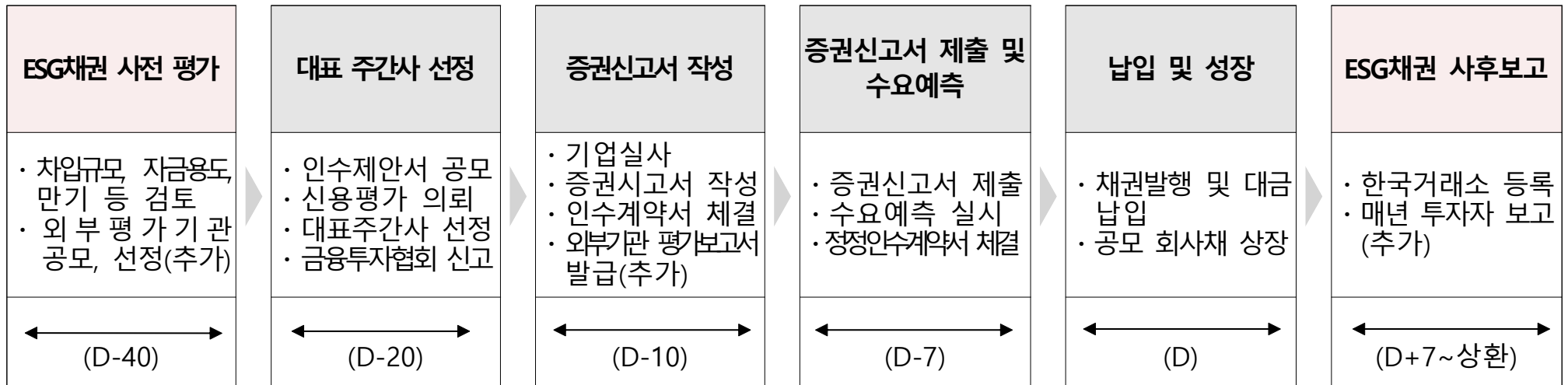
## □ 일괄신고방식1)



1) 동일 종류의 증권을 수시로 반복하여 발행하는 기업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발행예정인 증권을 일괄하여 신고하고, 실제 발행 시에는 추가서류 제출만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도록 하여 간편하게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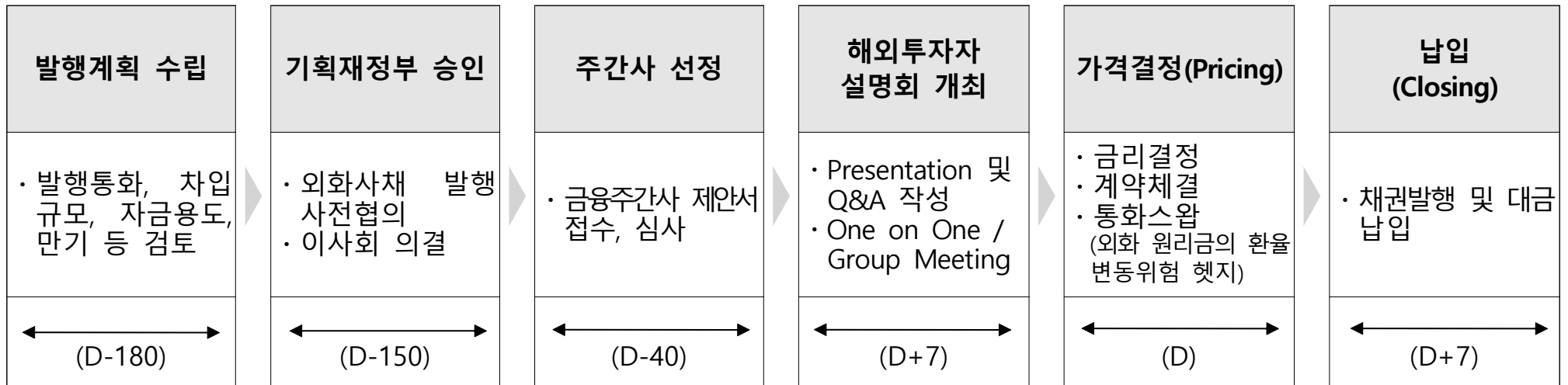
## 1.2 (원화) ESG채권 발행절차

- ESG채권은 일반채권 발행절차 대비 외부기관의 발행 전 평가, 발행 후 사후보고 단계가 추가됨
- 사후보고는 발행자금이 투자된 사업과 투자로 인한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발행사가 1년에 1번 이상 공시 또는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절차



# 1.3 (외화) 채권 발행절차

□ 외화채권발행은 원화채권 발행절차 대비 기획재정부의 사전 승인단계가 추가



## 2.1 자금조달 현황

### □ 회사채 발행실적

(단위 : %, 금리 : 가중평균)

구분(억원)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금리	금액
원화	1.687	5,000	2.372	11,000	2.321	6,000	-	-	1.572	9,500
외화	-	-	-	-	2.03%	3억\$	1.35%	5억\$	-	-

### □ 소요자금 실적 및 전망

구분(억원)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신규발행	9,209	5,757	9,500	13,732	10,456	10,684	10,328	11,370
차입상환	8,957	7,630	8,303	5,605	6,935	7,833	4,822	5,359
순차입금	252	△1,873	1,197	8,127	3,521	2,851	5,506	6,011

## 2.2 자금시장 동향 및 조달계획

- (시장동향) 최근 국내외 대형투자자의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 또한 ESG<sup>2)</sup>채권 중심으로 시장 재편 전망
  - (ESG채권 현황) 일반채권 발행 절차 대비 외부기관(신용평가사 등)의 발행전 평가, 발행 후 사후보고 단계가 추가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실제 조달금리는 낮게 형성하지 않았음

※ 일반채권 / ESG채권 발행 금리 비교

발행사	발행시기	발행규모	만기	채권형태	발행금리	국고채	민평금리	차이 (A-B)
중 부	'20.10월	700억원	5년	ESG채권	1.453 (A)	1.210	1.416%	3.7bp
서 부		100억원	5년	일반채권	1.416 (B)	1.265	1.413%	

- (자체계획) 연기금, 보험사 등 대규모 투자자의 탈석탄 투자정책 및 ESG채권시장 트렌드에 맞춰 한국서부발전도 ESG채권발행 계획하고 있으나, 채권발행 금리 절감효과는 불투명

2) ESG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최근 금융시장을 포함한 경제 전반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키워드로, 지구 온난화나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이슈,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 심화 등이 사회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투자자와 기업의 이익에도 부합된다는 경영트렌드 용어

### 3. 정책제언

#### □ ESG채권 발행의 실질적인 인센티브 필요

- 채권 발행사 입장에서 ESG채권 발행을 위한 사전인증·사후검증 등의 추가비용은 매년 발행하는 반면, 일반채권 대비 금리절감 효과는 미비

※ ESG채권 활성화를 위한 해외사례

- ① ESG채권발행 간소화    ② 발행수수료 감면    ③ 외부 인증 비용지원

#### □ 정부산하 투자기관의 적극적인 ESG채권 시장참여 필요

- 연기금 등 정부산하 투자기관의 ESG채권시장내 직접적인 매입을 통한 채권 발행사의 발행금리 인하로 공공·민간기업의 ESG분야의 투자 및 경영 유도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